

지역 소식통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턴 연계 기업 간담회 가져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정읍새일센터)는 지난 11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 인턴 채용기업과의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과 취업 여성의 고용유지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새일센터를 통해 인턴을 채용한 (주)신운 (유)세일 등 7개 기업과 새일인턴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공인(주) 등 8개 기업의 대표와 인사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정읍새일센터 현황과 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여성 구직자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 등 진행됐다.

참여 기업들은 취업 성공을 위해서는 인턴 채용 후에도 새일센터의 관심과 꾸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전북도 교육감배 태권도대회 성료

'제42회 전라북도 교육감배 태권도대회'가 지난 11~13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북태권도협회와 고창군태권도협회가 주관했고 임원과 선수 등 30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특히, 1위를 차지한 초등부와 중등부 학생 선수에게는 전국소년체전에 전북대표 선수로 출전할 자격이 부여됐고, 고등부 입상자 역시 전국체전 전북대표 선수 선발이 랭킹 포인트로 작용해 선수들의 승부욕을 높였다.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대회가 열렸고, 참가선수와 관계자 이외 대회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이어 고창에선 14~19일 '중국 청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파견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린다. 국내 50팀, 1500여명의 대학생이 겨루기와 품새 등 열전에 들어가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밤하늘의 은하수를 형상화

정읍시, 정읍천 죽림폭포 인근 인도교에 은하수 경관조명... 야간 안전에도 '도움'

정읍시가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정읍천 샘골다리와 정주교 사이에 있는 인도교가 은하수길로 재탄생해 새로운 야간 볼거리를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시는 정읍천 주요 교량을 활용한 경관조명 사업의 하나로 초산동 죽림폭포 앞에서 시가지 주민센터를 연결하는 연장 70m, 폭 4m의 인도교를 은하수길로 조성, 10일부터 개방했다.

은하수길은 띠 모양으로 하늘을 가로질러 은가무를 뿌려 놓은 듯 빛나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형상화했다. 교량 측면은 은하수 형상의 LED 경관조명 조명물을, 바닥 280㎡은충광석으로 도포해서 어두운 밤에도 은은하게 빛을 내도록 했다. 충광석(蓄光石)은 낮 동안 태양, 형광등 외부 광원으로부터 자외선을 흡수·저장해 두었다가 밤이 되면 스스로 빛을 발산해 은은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여기에 60여 개의 별과 시가 지향하고 있는 '정향누리 향기공화국'의 로고도 LED 조명으로 빛나도록 했다.

은하수길의 조명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다양한 색의 빛을 뿌리며 화려하고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물론 지역이 주는 따뜻함과 조용한 분위기로 위안과 힐링을 선사한다.

특히 어두운 밤거리를 야간 보행객들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면에서도 시민의 호응이 높다. 수성동 강모씨는 "저녁 산책을 하다 보면 다소 어두워 불안하고 불편했는데 은하수길 조성으로 밝아져서 안심될 뿐 아니라 별 등의 아름다운 조명이 마음도 환해진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데다 목재 데크 노후로 인해 파손 부위가 늘어나고, 부식과 비틀림 현상이 심해지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은하수길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은하수길이 시내 중심에 자리해 있고 보행자 전용도로 차랑이 다니지 않아 은하수를 걷는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14일 오후 동리국악당에서 세계적인 신학자 조병호 목사(하이기쁨교회 담임목사)를 초청해 '나눔과 봉사의 미학'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한반도 첫수도 고창포럼 첫 강의

조병호 목사, 고창에서 '나눔과 봉사의 미학' 특강

고창군이 14일 오후 동리국악당에서 세계적인 신학자 조병호 목사(하이기쁨교회 담임목사)를 초청해 '나눔과 봉사의 미학'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날은 군민과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실현을 위해 자발적 기부와 나눔의 가치, 고창다운 나눔과 봉사에 대해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목사는 "타인을 위한 나눔과 봉사는 나에게 큰 가치가 있으며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행동은 나의 행복

과 나아가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봉사를 개인의 가치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며 민·관이 협력해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실천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군은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의 복지공동체 실현, 군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 실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고창을 위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해 오프라인과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녹화된 동영상은 고창군 공식 유튜브채널 '한반도 첫수도 고창'에서 종료 후 일주일간 재시청이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우리집 에너지 돌보미 '에너지 홈닥터사업' 추진

부안군, 취약가구 난방시설 무상점검·수리... 주거복지 향상 기여

부안군에서 취약계층 13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홈닥터사업을 추진한다.

홈닥터 사업은 올겨울에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 난방시설에 대한 무상점검 및 수리를 통해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생활안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실현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노후 주거환경 거주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다

이번 에너지 홈닥터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3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접수가 완료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전문업체가 가정을 방문해 보일러를 무상점검·수리할 예정이다. 부안군은 작년 3월 사단법인 전라북

도 신재생에너지 기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 취약계층과 경로당 등 130개소에 대해 난방시설 점검 및 보일러 노후부품 교체를 완료하고

매년 에너지복지사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2021년까지 총 1,749세에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겨울철 에너지 돌보미 에너지 홈닥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지도 '총력'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사과와 배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화상병(火傷病) 예방을 위한 사전방제 지도에 나서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 병으로 잎·꽃·가지·줄기·과실 등이 검게 마르고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변하게 되는 증상이다.

초기증상으로는 물에 젖은 듯한 수침상을 보이며 심해지면 감염된 조직은 불에 탄 것처럼 짙은 갈색에서 검은색(배) 또는 붉은색(사과)으로 과사하는 특징을 지닌다.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고 병든 나무

를 제거해야 하는 병으로 식물방역법에 의거 국가에서 관리하는 금지 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화상병이 발생하면 반경 100m 이내의 기주식물은 모두 뿌리까지 굴취해 땅속에 매몰하는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발병된 폐기 과원은 3년간 사과, 배 식재를 금지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지역 내 사과, 배 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사전방제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과 병 징후, 방제 대책과 행정명령 준

수사항에 대하여 집중 교육했다.

특히 올해부터 의무화되는 3회 방제에 따른 농약 안전 사용과 방제확인서 작성 등 영농일지 작성 요령과 방역수칙 준수, 과원 관리 요령을 중점 설명하며 병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해당 농가와 지역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며 "화상병 예방적 방제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으로 과수 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2년 주산면 주민과의 생생소통 대화 성료

권익현 부안군수는 15일 주산면 게이트볼장에서 기관·단체장 및 마을 대표 100여 명과 함께 하는 생생소통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산 게이트볼장에서 이루어졌으며,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좌석간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행사에 앞서 부안의 인제 양성을 위해 주산면 이장협의회에서 장학기금 1백만원을 기탁하였고, 정춘수 주산면장으로부터 2021년 주요성과와 2022년 면정 비전과 방향, 추진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권익현 군수로부터 "군민과 함께하는 미래, 부안"을 위한 군정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은 후에 면민


들의 평소 군정에 대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사산리 효소생산농가와 갈촌리 새싹삼 농가, 주민행복사업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종사하는 농가를 격려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행정을 끝으로 주산면민과의 '생생소통 대화'를 마무리하였다.

정춘수 주산면장은 "군과 면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면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깨끗한, 안전한, 건강한 주산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희망찬 각오를 다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